**[동부하이텍]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생산**

**1.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십시오**

[끝판왕 졸업작품]

열정이 있어야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엔지니어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졸업작품 지도교수님도 반도체를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은 편하게 졸업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점수를 잘 주는 교수님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FinFET과 CNTFET 두 가지 후보를 정했습니다. 고민 끝에, 상용화된 FinFET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CNTFET을 연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CNTFET은 연구단계라 서적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영문 논문밖에 없다며 걱정하셨습니다. 흔들렸지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논문이 모두 영문이고, 원하는 논문만 찾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 명당 논문 3편씩을 맡아 분석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스터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논문 1편에만 3시간씩 걸렸습니다. 하지만 5주간 꾸준히 논문을 읽었고, 40편 이상의 논문들을 분석했습니다. 논문의 공통내용과 다른 내용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1학기 최종 발표에서 교수님은 저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A+를 받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정이 있다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동부하이텍에 입사하여도 처음 열정 그대로 노력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2. 본인의 지원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약점을 기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십시오**

[강점 : 탄탄한 전공 지식]

전자 공학도로서 전공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물리전자공학>을 시작으로 <반도체소자>, <디스플레이소자>에서 모두 A+를 받으며, 자연스레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대한 지식을 보충하고 싶어 온라인 평생 교육원에서 <반도체공정기초>를 수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과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전자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학부 지식이 실무에 있어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적응하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점 : 언어 능력]

저는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남 앞에서 발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생산 부문은 함께 협업하는 부서가 많으므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입학 후, 현장에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또한, 1학년부터 현재까지 열기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도교수님과 교관님과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 동아리에 합류하는 어린 후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언어능력이 쉽게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숨기지 않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3.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 동부하이텍의 미래 ]

반도체 공정에 본격적인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MEMS 공정실습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대표 3인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photo lithography, deposition, etching의 공정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2개의 mask만을 이용하는 실습이었지만, develop 시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electroplating으로 만들어진 구리 inductor가 벗겨지는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파라미터의 작은 오차로 인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공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부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비중을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자동차와 IoT의 성장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동부하이텍을 선택했습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엔지니어]

지름길만을 찾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눈앞의 쉬운 길만을 찾다 보면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고, 잘 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결국엔 후회할 것입니다. 취업으로 바쁜 4학년, 친구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교양 위주의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배우는 모든 전공이 엔지니어로서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위한 전공학점보다 25학점을 더 수강했습니다. 동부하이텍에서도 요행을 바라지 않으며, 회사와 자신이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